

완도 장보고 유적지 복원 다시 불 지펴

최홍 작가 “운주사 천불천탑, 장보고 추모 유적지” 주장

‘천년의 비밀, 장보고대사와 화순 운주사’ 특별강연이 지난 5월 7일 완도문화예술회관의 전당에서 열렸다.

이번 특강은 ‘천년의 비밀 운주사’라는 책의 저자 최홍 씨가 “운주사를 천불천탑의 불교 유적지가 아니라 장보고 추모 유적지”라고 주장한 것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1부는 최홍씨의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장보고 연구의 현황과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마광남 장보고연구회 회장 강의 및 보고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을 주관한 사단법인 ‘완도문화21’ 이사장 법일 스님(완도 신승사 주지)은 “장보고대사에 관한 많은 연구와 업적 재조명, 기념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가 미진하다”면서 “이번 강연이 장보고대사 연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홍 작가는 이날 강연에서 “운주사(雲

住寺)는 사찰 이름이 구름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배가 운항하는 절이란 의미인 운주사(運舟寺)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주사가 불교 신앙의 유적인 ‘천불천탑’의 성지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낳은 불세출의 해상 영웅 장보고를 추모하기 위한 유적지”라고 밝혔다.

특강 주최측, 장보고 연구 재개해

유적지 복원 앞장서는 계기 돼야

특강이 끝난 후 주관단체인 ‘완도문화21’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장보고 연구 및 업적 재조명·유적지 복원과 관련한 협약식’을 갖고, 이번 특강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장보고 연구와 유적지 복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완도문화21’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5월 7일 ‘장보고 유적지 복원 관련 협약식’을 맺었다.

완도는 장보고대사의 고향이자 활동 본거지로, 1997년부터 장보고 유적지가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되면서 장보고 재조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보고가 동북아 해상권을 장악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중국의 산둥과 일본의 교토 등 국제적

연구 작업도 활발히 전개됐다. 그 결과 장보고대사가 창건한 중국 산둥의 적산 법화원과 제주 법화사가 복원되었지만, 완도 법화사의 경우 발굴 조사중 고려시대 유물이 나오며 조사·발굴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동원사, 제1회 영유아 수계산림

영·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수계산림이 개최돼 지역 불교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광주 동원사(주지 지장)와 어린이 청소년공동체 나무숲은 지난 5월 3일 동원사 대웅전에서 ‘제1회 나무숲 영유아수계산림’을 개최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2014 빛고을관등축제 봉행위원회’ 후원으로 영·유아와 어린이 87명과 학부모들이 수계의식에 참여했다.

이날 의식은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3사 7중사의 스님들이 증명법사로 참여해 삼보사찰의 정한수합수 의식, 오계설법, 판정 의식, 수계증 수여, 어린이 수계 발원 등의 순으로 봉행됐다.

이날 참가 어린이들은 이마에 정수를 뿌리는 판정과 연비의식을 치른 뒤 수계

와 법명을 받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살 것을 다짐했다.

수계산림 갈마아사리를 맡은 증심사 주지 연광스님은 수계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계율은 사람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첫 약속이다”며 “수계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복덕, 지혜의 씨앗을 심어, 어린이들이 자비롭고 지혜로운 불자로 자라 나갈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어린이수계산림은 참체에 빠진 영·유아 어린이 포교에 새로운 모델 프로그램으로 환영받을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 자녀들과 젊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광주지역 포교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행사는 높은 호응도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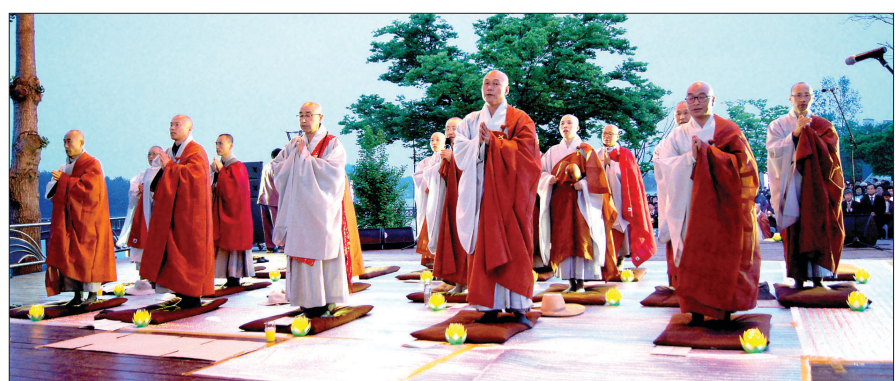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스님이 유아 어린이에게 5월 3일 수계연비를 하고 있는 모습

봉축법요식, 세월호 추모법회로 치러져

군부대·사암련·일선 사찰 등 동참



전북 군산사암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5월 2일 군산 은파공원에서 추모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국 곳곳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예정됐던 연등제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범국민적 애도에 동참한다는 의미의 추모법회로 대체됐다.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스님, 상주사 주지)는 5월 2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군산 은파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법회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 생존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염원했다. 도연스님은 대회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대해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회한다”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생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회를 마친 사부대중은 촛불을 들고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은파물빛다리를 왕복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

의 신속한 구조를 기원했다. 한편 전북 임실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지도법사 이성강 포교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3일 부대 장병들의 안전과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법회는 200여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군 북무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과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보살님께 기원하는 자리였다.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류화산)에서도 세월호 희생자 추모 대법회를 부처님오신날 전야 봉축점심식과 함께 5월 6일 봉행했다.

법회에 참석한 2천5백명의 대중들은 봉축도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등불이 되기를 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손문철 대구지사장

“수행과 포교는 새의 양 날개와 같다”

부산 부경대 제주 약천사 회주 헤인스님 초청 법회



헤인스님과 부경대 불교교수회, 동문회와 학생회 회원들이 법회 후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 부경대 불교교수회(회장 배종일)와 불교동문회(회장 한태수) 및 학생회(회장 임준영)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5월 3일 제주 약천사(주지 성원스님) 회주 헤인스님을 모시고 ‘알아차림과 어울림(수행과 포교)’이라는 주제하에 대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대강연회는 제15회째로 부경대 대학본부 대강당에서 1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종일 부경대 불교교수회 회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헤인스님의 높은 법문을 청하게 되어 기쁘다. 참석하신 분들께 법향이 가득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경대학교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목종스님(대광법사 주지)은 “헤인스님은 여러 분이 잘 알다시피 원력 대보살이시다. 전 법과 포교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는 헤인스님은 평소 내가 존경하는 큰 스님으로, 멀리서 여기까지 와주셨다. 동참하신 여러 인연들께도 스님의 원력이 함께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헤인스님은 “수행과 포교는 새의 두 날개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수행만 잘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교만 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새가 양 날개가 없으면 날 수 없고 수레가 두 바퀴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수행과 포교는 항상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르침을 전했다. 헤인스님은 이어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 동안 포교에 애쓰셨다. 우리도 개인의 수행에서 나아가 불법을 전하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무등산 원효사 김치나눔행사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의 봉축행사가 개최되어 화제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주지 현지)는 지난 5월 3일 ‘행복한 봄 김치나눔’ 행사를 갖고 광주 북구지역 독거노인과 영광지역 재할기관인 난원 등 복지시설에 김치 200상자, 튀김, 무김치 등을 전달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진행된 이날 나눔은 원효사 신도회, 공익진나눔봉사, 청년회, 명선차회 소속 봉사단원이 직접 김치를 담아 전달했다.

현지 스님은 “행복은 나눌수록 즐거워지고, 나눔은 실천할수록 복덕이 된다”며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과 봉사단원이 직접 김치를 담고 있다.

“작은 정성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구 법왕사 27회 백고좌법회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5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100일간 100분의 고승 대덕들을 초청, 큰법당에서 국가안녕과 호국,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27회 백고좌대설법회’를 봉행한다.

성열 스님(강남포교원장)의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8월 20일에는 前 해인사 울림원장인 혜능 스님의 회향 법문으로 마무리된다.

리된다.

백고좌(百高座) 법회란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백일 동안 매일 한분씩, 1백인의 큰스님을 모셔 설법케 하는 법회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기 613년 신라 진평왕 때 황룡사에 백고좌를 차리고 원광법사 등을 맞아 들여 설법한 것이 처음이었다.

배현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벳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올림고동리 473-2

통관차상 (640×400×180mm)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와 전통가구의 정겨움을 담은 수품림 통관차상

100% 국내제작

소나무 원목을 사용하여 전통가구 장인이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한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나뭇결의 아름다운 문양이 살아 숨 쉬는 고급스러운 차상입니다.

- 늘 곁에 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담한 크기
-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소나무 나뭇결 문양
- 낙동법을 사용한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하여 튼튼한 내구성 보장

입금계좌: 농협 121078-56-121535 (류정애) 정가 150,000원 **할인가 90,000원**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

수품림숯침대(주) www.supulrim.co.kr